

주 일 낮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오전 9:00 오전 11:00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 경 배 찬 송	다 함 께
8. 거룩 거룩 거룩 오소서 임마누엘(ccm)	
■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사도신경]	
기 도	 조원선집사 박병기장로
성 경 봉 독	인 도 자
누가복음 21:25-36	
찬 양	교 사 중 찬 단
I 그 나라에 살리 II 약속된 하늘의 왕	호 산 찬 양 대
설 교	김 동 오 목 사
“늘 깨어 있어라”	
기 도	다 함 께
봉 헌	다 함 께
176.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목 회 기 도	설 교 자
성 찬 예 식	인 도 자
229. 아무 흠도 없고	
■ 결 단 의 찬 양	다 함 께
환난 가난과 고난(ccm)	
■ 축 도	설 교 자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다음 기도 / I. 신예슬교사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II. 신재희장로 ■ 12월 8일 / 눅 1:68-79, 말 3:1-4, 빌 1:3-11, 눅 3:1-6	

주 일 오후 찬양 예배	
오후 2:00	인도 / 김동오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믿음으로 찬양단
기 도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인 도 자
데살로니가전서 3:9-13	
찬 양	자 원 자
설 교	김 동 오 목 사
"대림절 영성"	
기 도	다 함 께
찬 송	다 함 께
18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축 도	설 교 자

수 요 저 녁 예 배	
오후 7:15	인도 / 김동오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코람데오 찬양단
기 도	임윤구집사
성 경 봉 독	인 도 자
사도행전 13:13-52	
설 교	김 동 오 목 사
"행26.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한 복음"	
기 도	다 함 께
찬 송	다 함 께
500. 물 위에 생명줄 던지여라	
축 도	설 교 자
	□ 다음 기도 / 함용만관사

새 벽 기 도 회	
새벽 5:00	인도 / 김동오목사
· 월	2일 요한계시록 7:9-17 흰옷 입은 무리의 경배와 찬양
· 화	3일 요한계시록 8:1-13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역사
· 수	4일 요한계시록 9:1-21 불신자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
· 목	5일 요한계시록 10:1-11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
· 금	6일 요한계시록 11:1-14 두 증인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
· 토	7일 요한계시록 11:15-19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마지막 심판
· 일	8일 요한계시록 12:1-6 여자와 용의 영적 전쟁
	* 새벽기도회 독상 말씀은 Q.T 교재 <생명의 숲>(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설 교 요 약

“늘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 25-28절, '인자가 오는 때'에 벌어지는 징조, 2) 29-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유, 3) 34-38절, '깨어 있어라'는 권고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연결됩니다. 인자가 오는 때에는 우주 차원의 대혼란이 발생하고 대중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고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우주 차원의 혼란도 그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혼란과 대재난이 일어나는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를 누가복음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날'입니다.

파멸적인 '날'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재난이 닥치기 전에는 그런 현상과 무관한 듯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개인의 일상에 과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살이에서 인정받는 일이 중요하니 그런 일상의 질서가 해제되는 그 '날'을 실감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묵시적 대재난은 인류 전체 차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에서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실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실제 우리는 크고 작은 묵시적 대재난을 일상에서 겪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우리가 정신 팔리는 대상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방탕'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루터 성경은 '게걸스럽게 먹는다'로 번역합니다. '술 취함'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이고,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면 그 '날'이 갑자기 '뿔'처럼 닥칩니다. 세상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요구에 매달리다 보니 참된 평화도 안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묵시적 대재난의 '날'이 온다는 것마저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36절을 공동번역성경은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인자/스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묵시적 대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자는 마지막 때 심판의 전권을 행사할 인물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인자 앞에 선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묵시적 대재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늘 깨어 있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차원에 속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진지하게 묻고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인간 실존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1)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 |

- 대림절(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 12월 1일 - 24일 / 성찬예식
- 재정 감사 : 12월 1일(주일), 세미나실(2층), 감사위원 : 김현영 홍현기
- 신년 계획 및 인사 당회 : 12월 1일(주일) 오후 3:00, 담임목사실
- 기관 신입 임원 헌신예배 : 12월 8일(주일) 오후찬양예배
- 대상 : 각 기관(남여전도회, 청년회, 청소년회) 임원
- 신년 재정 예산위원회 : 12월 8일(주일) 오후 3:00, 담임목사실
- 위원 : 당회원, 재정부원, 감사
- 일본단기선교를 위한 일일 찾집 : 12월 8일(주일), 15일(주일)
- 공동식사 쌀 대접 : 양주원 안유정

▣ 성경 및 헌금 계좌 안내

- 태장성결교회 공식 성경은 [새번역성경]입니다.
성경찬송 구입 원하는 분은 예배부장 신동희원사께 문의하세요.
- 헌금 계좌번호
 십일조, 감사, 건축 / 농협 213-01-166145, 태장성결교회
 예) 십일조-000십, 감사헌금-000감, 건축헌금-000건, 주정헌금-000주
 선교헌금 / 새마을금고 4315-09-005272-5, 태장성결교회(선교부)
 나눔헌금 / 새마을금고 9002-1353-6796-9, 태장성결교회(나눔위)

▣ 목회계획

12.1-7	12.8-14	12.15-21	12.22-28
6. 코칭넷(태장)	13. 강원칼넷 실행위원회	15. 헌금작정주일 20. 금요저녁기도회	22. 정기 사무총회 23. 신임 부담임목사 이사 25. 성탄감사예배 성탄축하공연 크리스마스엔 선물을

▣ 봉사위원

구분	12.1	12.8	12.15	12.22
차량 운행	1호 강병린	2호 강대봉	신재희	강대봉
주방	24,36,45구역	32,33,35구역	34,43,46구역	-
오후 돌봄	김종순 김춘자	강은숙 김재욱	최명숙 유혜순	-
청소(화장실)	4여전	4남전	5여전	5남전
봉헌	1부: 신동희		2부: 주현중 김은영	

| 교회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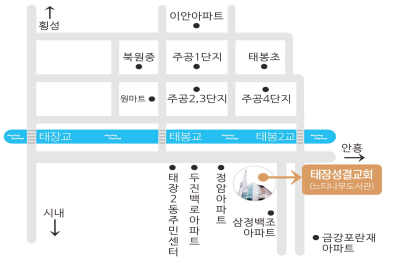
▣ 우리 교회는!

1.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씁니다.
2.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해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서 가정을 배려합니다.
3. 지역사회와 더불어 숨쉬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3금 오후 8: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에버예배	목 오전 1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구역장교육	수 새벽/저녁
주일 영유아예배	오전 11:00	성장반훈련	화저녁 / 수오전
주일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전도모임	토 오전 10:50
주일 청소년예배	오전 11:00	구역모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00	주말교회청소	기관별 별도시간

▣ 태장성결교회 가는 길



- 시내버스 / 3, 4, 6, 7, 41, 42번 정암아파트앞 하차
- 교회 버스 / 주일낮, 수요, 새벽예배 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 김동오
- 명예 목사 : 채수환
- 부담임 목사 : 강호길
- 청소년간사 : 황노헤미야 임에스터 (T국)
- 선교사 : 박예덴 베들레헴 (L국), 최웅락 이민숙 (K국), 박종민 이인덕 (T국), 지영환 김희수 (V국), 최경민 김은진 (G국)
- 협력교회 : 가평더사랑 귀운 서원주 영동 주님의 주사랑 주비전스토리 한우리
- 시무장로 :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 원로장로 : 박병기
- 명예장로 : 황호운 김성제
- 은퇴장로 : 김정원
- 찬양지휘 : 고재석
- 반주 : 원신희 변찬미 사공수인 신지혜 박예강 이하민 최은선
- 협력사역 : 강원코칭넷 강원칼넷 DPA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임주복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2024년 12월 01일
(통권 제 53권 48호)
교회설립 1973.5.20.
대림절 첫째 주일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일일찾집의 추억 그리고 현재”

강호길 간사

처음 교회를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맞이한 행사가 일일찾집이었습니다. 볼거리, 누릴거리가 없던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일일찾집은 굉장한 이슈였고, 이 행사를 위해 많은 교회분들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삐뽀뽀 손으로 쓴 메뉴판. 여기저기 달린 감각이러곤 없는 풍선, 까까머리 중고등학생이 서빙하는 그런 작은 공간, 몇 좌석 없는 테이블. 맛은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추억이 맞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끼고 아껴 모은 용돈으로 커피 한 잔과 새우깡을 시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돌아온 기억이 있는 일일 찾집. 시간이 흘러 바쁜 일상을 살고 너무나 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살다 보니 일일찾집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되었고 그런 향수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일본단기선교를 준비하는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 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선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누면서, 차 한 잔으로 일본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 계획했습니다.

청소년이 대부분인 이번 일본단기선교는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청소년들이 선교를 위해 재정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련된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 그 과정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청소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일찾집을 준비합니다.

비록 협소한 장소와 청소년들의 미흡함이 있겠지만 일본단기선교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면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후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26318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4 (태장동)
☎. 033-742-6762, 070-5168-1770 (담목)
태장성결교회
http://taejang.org